

# 보건소 진화... 동네 병·의원 '울상'

보건소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펼치는 등 날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동네의원이 울상을 짓고 있다.

광주시 일선 보건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건소 내과·치과·한방치료 등 이용자 수는 9만8천3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4천110명에 비해 4.48%(4천218명) 늘어났다.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것은 임신부와 노약자·어린이 등 진료 대상과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선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진료과목은 예방접종(B형 간염·일본 뇌염 등)·물리치료·임상병리(민혈·간기능·혈당 등)·치과(충치·흡 메우기·스켈링 등)·한방진료 등 기본적인 진료부터 각 보건소별 특화 의료서비스까지 다양하다.

북구 보건소는 정신지체장애인과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귀 재활프로그램을 전남대병원·요한 병원에 위탁, "정신보건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의사와 간호사·자원봉사

## 내과·치과·한방 등 장비 현대화 광주 올 9만8,328명 이용 '복직' 병·의원은 환자 급감 '볼멘소리'

자 13명이 매주 기초수급대상자·독거 노인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약 복용법·음식 조절법·운동 요법 등 '방문간호 서비스'를 실시해 인기를 끌고 있다.

남구보건소도 65세 이상 노인들을 일요일 낮 시간 동안 보호해주는 '효사랑 방문간호 서비스'를 개발, 가족의 부담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동구보건소는 의사·간호사가 불우이웃을 방문, 영양제 등을 부여해 주고 있으며, 서구보건소도 암·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각 보건소들은 또 ▲생화학 자동

분석기(7천900만원·간염·간기능 검사 등) ▲자동혈구계산기(4천400만원·빈혈·백혈구·적혈구 검사)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1억8천만원) ▲체성분 분석기(2천100만원) ▲에이즈검사분석기(1억원) 등 병의원 못지않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진료비도 저렴하다. 감기의 경우 일선 보건소에서 처방전만 받을 땐 본인 부담금이 500원이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3천400원으로 7배나 싸다.

반면 동네 병·의원의 볼멘소리는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남구 Y 병원의 경우 하루 평균 70명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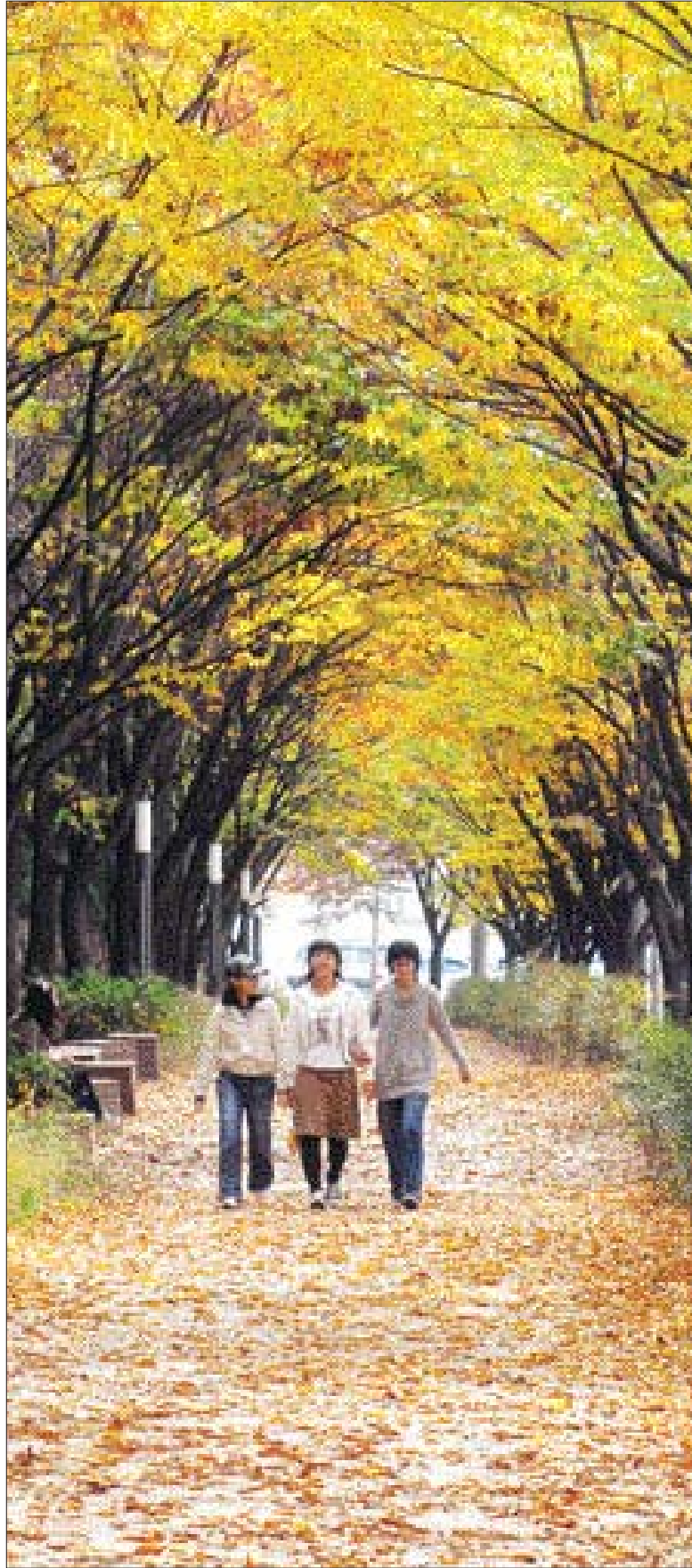
이 찾았는데 최근엔 보건소로 몰리면서 환자 수가 10~20% 가량 감소했다. 보건소와 인접한 의원급의 경우 환자 수가 50% 이상 격감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현재 광주지역 병·의원은 750여 곳(의원급 700여 곳)으로, 하루 평균 환자 수는 ▲내과 30~40명 ▲외과 60~70명 ▲정형외과 70~80명 선. 하지만 갈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병의원 측의 하소연이다.

광주시 의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기능이 확대되면서 동네 의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확대는 의료소의 계층을 해소하기 위해 출발한 공공의료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남구 보건소 박영석 소장은 그러나 "보건소와 병·의원은 각자의 기능이 있는 만큼 이를 경쟁 관계로 보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 중외공원 단풍길

29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문예회관~중외공원에 이르는 500여m 구간에 쌓인 낙엽을 밟으며 여학생들이 뛰어가는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쌀쌀한 초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단풍도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 상습 도박 주부 등 19명 적발 5명 명장

광주 광안경찰은 29일 광산구 도산동에서 한 차례에 수십만~수백만원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송모(여·63·광주시 광산구)씨 등 가정주부 11명을 포함한 19명을 적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중 재개발지역 빈 집을

구입, '하우스 방'을 차린 '창고장' 주모(여·44)씨와 '상치기'(송자에게 돈 배분하는 역할) 김모(50)씨 등 5명에 대해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밤 9시부터 90회에 걸쳐 판돈 675만원을 놓고 속칭 '도리치고방' 도박을 한 혐의다. /이은미 기자 emlee@

## 나원침 (7344) 김종두



다들 말하잖아 신협재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의료대대학원

KCC광호, 시스텔광호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건설, 연세의료대대학원

실리콘·방수제·합착제·타이브

택배직원, 물품 속 귀금속 훔쳐

## 상나팔

○광주 북부경찰은 29일 택배 물품 속의 귀금속만을 훔쳐 달아난 전 택배회사 직원 정모(23·광주시 서구 처평동)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7시10분께 광주시 북구 H택배회사 배송 작업장에서 배달할 물품 속에 들어있는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시가 4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는 것.

○정씨는 택배회사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배송지의 결표지가 'OO귀금속' 등으로 적혀 있는 것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회사 직원과 퇴직자를 상대로 범죄경력 등을 조회, 용의자를 5명으로 압축한 뒤 주거지 인근 및 시내 금방을 탐문수사한 끝에 정씨를 검거. /이종행 기자 galee@kwangju.co.kr

## 성매수 대학교수 등 650여명 조사

### 여수 안마시술소서

여수지역 퇴폐 안마시술소에서 성매수한 대학교수·공무원 등 650여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여수 H 안마시술소 업주 김모(47)씨와 이모(여·26)씨 등 여종업원 7명을 검거, 매출 전표를 압수했다.

경찰은 신용카드 결제자 650여명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전화로 소환 통보한 뒤, 현재 20여 명을 불러들여 신용카드를 쓴 경우 등을 추궁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여수지역 거주자로 ▲대학 교수 2명 ▲공무원 3명 ▲교사 8명 ▲대기업 직원 4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하실 창고를 개조해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1회당 16만원의 화대를 받고 90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 1억4천여만원을 챙긴 업주 김씨에 대해서는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여종업원과 성매수자들도 조사가 끝나는데 대로 불구속 입건한다는 계획이 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지법 "중증재산 여성 배제하면 무효"

중증(문중) 재산을 처분·분배하면서 여성을 제외하고 남성 회원들끼리만 나눠 갖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최인규 판사는 29일 박모(여·68)씨 등 밀양박씨모 중증 여성회원 26명이 중증을 상대로 낸 분배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중증 재산을 처분·분배할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후손 전원을 대상으로 합리적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성년 남자 중증원에게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고 현저히

불공평해 중증 총회 결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문중은 이미 지급된 분배금을 회수한 뒤 새로운 분배 결의에 따라 재분배해야 한다. 또 남성들에게만 분배금을 지급하는 문중이 많아 여성 중증원들의 분배금 지급 소송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 문중은 지난해 8월5일 중증 총회에서 토지수용 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성년 남자 350명에게만 300만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아파트 관리비 통장 도난 수천만원 인출

### 입주민·농협 책임공방

광주지역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도난당한 장기수선충당금 예금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된 것과 관련, 입주민과 금융기관 측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29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께 북구 연제동 S아파트(480세대) 관리사무소에서 8천여 만원이 든 통장이 도난당했다.

이 통장에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농협 광주지역본부 비엔날레지점과 광천동·상촌동·화정동 등 4곳에서 모두 7천200만원이 인출됐다.

지난 2005년 9월 개설한 이 통장은 승강기 리모델링·주차장 보수·외벽 페인트 공사 등 시설물 노후에 따른 교체·수리 등을 위해 세대당 매월 7천500원씩 거둬 예금해 둔 것이다. 범인은 은행 창구에서 현금 2천만원 이상 인출할 경우 자정잠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위조된 도장을 사용해 1천여 만원

씩 분산 인출했다. 이 통장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던 범인은 은행 직원의 의심 없이 돈을 쉽게 인출해 달아날 수 있었다.

입주민들은 "은행 직원이 통장과 출금전표의 거래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해 주 문제가 발생했다.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지점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며 29일부터 내달 23일까지 관

할 경찰에 집회신고를 냈다. 농협 측은 그러나 "통장과 출금전표의 거래도장이 일치한데다 비밀번호도 틀리지 않아 현금을 인출해 줬다. 어느 은행에 가더라도 이 세 가지가 일치하면 돈을 인출해 주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금전표와 통장 개설 지점의 거래원장의 도장이 다른 것은 확인했다"며 "과실 여부는 범인이 잡히고 인출 경위가 밝혀진 뒤 따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alee@

## 주민 "도장 확인 안해"

### 농협 "세 가지가 일치"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저도 까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겉보고 뭐든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까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까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 부채표 까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까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아산화,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11가지 생약성분 - 부채표 까스활명수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상의하심시오. | 광고실의전화 028-0200